

신라의 건국신화와 국가제의

The Birth Myth of Silla and National Ceremony for ancestral rite

저자
(Authors) 채미하
Chai, Miha

출처
(Source) [한국사학보 \(55\)](#), 2014.05, 167-196(30 pages)
[The Journal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55\)](#), 2014.05,
167-196(30 pages)

발행처
(Publisher) [고려사학회](#)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20023>

APA Style 채미하 (2014). 신라의 건국신화와 국가제의. 한국사학보(55), 167-19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05 11:1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의 건국신화와 국가제의

채 미 하*

1. 머리말
2. 건국신화와 始祖廟
3. 건국신화와 神宮
4. 건국신화와 五廟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신라의 건국신화가 국가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변화되었음을 살펴본 것이다. 남해왕 3년에 설치된 시조묘에는 박씨집단의 族祖인 혁거세를 모셨다. 하지만 아달라왕대 신라연맹체의 祭天이 사로국의 시조묘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혁거세는 국조가 되었고, 신라 상고기 내내 시조묘의 主神이 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혁거세의 위상 변화는 혁거세신화에도 반영되었는데, 혁거세의 죽음과 五陵 전승에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혁거세의 배타성은 뱀의 방해로 알영이 혁거세와 합장하지 못하였다는 데서 생각해 보았다.

소지왕 9년에 설치된 신궁의 주신은 혁거세로, 혁거세는 쏘 국가적 시조왕의 성격을 지녔다. 이것은 신라의 건국신화에서 혁거세·알지·탈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김씨왕실은 자신들의 시조인 알지를 혁거세신화에 부회하였다.

* 경희대학교 사학과.

주요논저 : 2013, 「한국고대의 궁중의례」, 『사학연구』 112 : 2013, 「신라 흥덕왕대의 정치와 의례」, 『신라문화』 42 : 2012, 「신라 흥례의 수용과 그 의미」, 『한국사상사학』 42 : 2012, 「한국 고대의 죽음과 喪·祭禮」, 『한국고대사연구』 65 등.

그리고 혁거세가 계정에서 태어났든가, 알영이 혁거세와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전승을 통해 신궁단계에서 알영이 혁거세신화에 포용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혁거세의 포용성은 신궁이 설치된 장소인 시조가 初生(誕降)한 장소, 즉 양산과 나을의 성격에서도 알 수 있었다.

신라 중대 김씨왕실은 중국 상고 전승에 나오는 소호금천씨에서 김성 칭성 이유를 찾았다. 그리고 오묘의 수위에는 그의 후손인 성한을 태조로 모셨고, 해공왕대에는 미추왕을 김성 시조로 하고 오묘에 모셨다. 이러한 변화는 기왕의 혁거세·알영·탈해신화의 내용과는 달리, 혁거세와 알영을 서술성모가 낳았으며 탈해를 동약대왕으로 불렀다는데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건국신화를 보면 계정, 계림, 백마가 서쪽과 관련있다고 하면서 알영, 알지, 혁거세 탄생의 유사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혈연적 계보를 중시하는 오묘제가 신라의 건국신화에 큰 변화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1. 머리말

건국신화는 초현실적, 초자연적인 내용을 전함과 동시에 국가의 창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화적 요소와 역사적 요소가 복합되어 있는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는 단군·주몽·혁거세·탈해·알지·수로왕신화 등이 있다. 이러한 한국 고대 건국신화와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왔다. 그리고 국가제의를 건국신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국신화와 국가제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때문에 연구자들은 한국 고대 건국신화와 국가제의를 연결지어 살펴보았다.¹⁾ 이를 통해 한국 고대 건국신화와 국가제의에 대한 이해는 더욱 깊어졌고 넓어졌다.

다 아다시피 신라의 건국신화인 혁거세신화와 알영·알지·탈해신화 등은 독자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 중 혁거세 신화에는 육촌장 뿐만 아니라 알지와 알영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혁거세, 알지, 탈해는 서

1) 김두진, 1999, 『한국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조각 : 윤성용, 2005, 「고구려 건국신화와 제의」, 『한국고대사연구』 39 : 나희라, 2005, 「신라의 건국신화와 의례」, 『한국고대사연구』 39 등.

로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신라의 건국신화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신라의 건국신화가 각 시조 전승을 근간으로 형성되었지만, 다른 시조 전승을 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²⁾ 그리고 혁거세와 관련된 전승에는 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과는 달리 선도성모가 혁거세와 알영을 낳았다는 것도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라의 건국신화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으로 접근되었고, 종합적인 분석은 부족하지 않았나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신라 건국신화의 복잡한 양상과 서로 다른 전승은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갖추어졌다.³⁾ 하지만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알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신화의 내용은 절대 연대를 명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화의 내용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로서 그 의미는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신화의 변화와 사회상의 맥락은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신화의 변화는 역사적 단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신라의 건국신화를 재현한 것은 신라의 국가제의이다. 신라 상고기 시조묘와 중고기 이후 신궁의 주신은 혁거세였다. 혁거세가 국가제의의 대상이 된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건국신화에도 이것은 반영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중대 이후 혈연을 중시하는 오묘제가 성립되면서 혁거세에 대한 제사와 건국신화는 변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신라 건국신화의 변화를 국가제의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시조묘 단계에서는 6촌장과의 관계에서 시조로 모셔진 혁거세가 신라 상고기에 시조묘의 제향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당시의 여러 정황과 혁거세신화에서 찾아 볼 것이다. 다음으로 신궁단계의 건국신화에서는 알지 뿐만 아니라 탈해, 알영 등이 혁거세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신궁이 설치된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2) 김두진, 1989, 「신라 건국신화의 신성축 관념」, 『한국학논총』 11 : 1999, 위의 책, 259쪽.

3) 혁거세신화가 재구성되는 시기를 이사금기로 보기도 하며(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94쪽), 중고기 진흥왕대 『국사』를 편찬할 당시 기본 골격이 이루어졌다고 하기도 하고(전덕재, 1996, 『신라육부체제연구』, 일조각, 15쪽), 신라 하대라고도 하였다(三品彰英, 1975, 『三國遺事考証』 上, 塙書房, 415쪽).

것이다. 그리고 신라 중대 김씨왕실의 가묘제인 오묘제가 성립되면서 김씨 왕실의 시조 뿐만 아니라 신라의 건국신화는 크게 변화하였다. 이것은 당시 국가제도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건국신화와 국가제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건국신화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변화하는 모습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건국신화와 始祖廟

신라의 시조묘 건립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A-1) 봄 정월 始祖廟를 세웠다.⁴⁾

A-2) 제2대 남해왕 3년 봄에 시조혁거세묘를 세워 四時로 제사지내고 親妹인 阿老에게 主祭하게 하였다.⁵⁾

위 사료 A에 따르면 남해왕 3년 봄에 ‘시조’ 혁거세묘를 세웠고, 四時에 제사지냈는데 남해왕의 친누이동생인 아로가 제사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남해왕이 설립한 시조묘에는 ‘시조’ 혁거세왕⁶⁾을 모셨다. 시조묘의 주신인 혁거세의 등장은 다음과 같다.

B-1) ① 시조의 姓은 박씨이고 이름은 혁거세이다. 前漢 孝宣帝 五鳳 元年 (B.C.57) 甲子 四月 丙辰(혹은 正月 15일이라도 한다)에 즉위하였다. 號는 居西干이다. 이 때 나이는 13세이다. 국호는 徐那伐이다. … ② 高墟村長 蘇伐公이 楊山 기슭을 바라보니 蘿井 옆 숲 사이에서 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이에 가서 보니 갑자기 말이 보이지 않았다. ③ 다만 大卵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

4)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남해차차웅 3년.

5) 『삼국사기』 권32, 잡지1 제사.

6) 시조묘의 주신과 관련해서는 채미하, 2003, 「신라의 시조묘제사」, 『민속학연구』 12 : 2008,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63~65쪽 참조. 최근 김선주는 혁거세의 주신을 알영으로 보았다(2010, 『알영 전승 의미와 시조묘』, 『역사와현실』 76, 174~189쪽).

르니 갓난아이가 나왔다. 거두어 길렀다. ④ 나이 10여세에 미쳐 재주가 특출하고 夙成하였다. 육부인이 그 태어남이 神異하여 그를 推尊하였는데, 이 때에 이르러 임금으로 세웠다.⁷⁾

B-2) ① 전한 地節 元年(B.C.69) 壬子 3월 초하루 六部祖가 각각 자제를 데리고 모두 알천 언덕 위에 모여 의논하기를, “우리들이 위로는 백성을 다스릴 만한 君主가 없어 백성들이 모두 放逸하고 제멋대로 놀고 있으니, 어찌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 그를 군주로 삼아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였다. ② 이 때 높은 데 올라가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 아래 나정 옆에 이상한 기운이 번개처럼 땅에 드리우더니, 흰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③ 그 곳을 찾아 살펴보니, 紫卵(靑大卵이라고도 한다) 1개가 있고 맑은 사람을 보자 길게 울며 하늘로 올라갔다. 그 알을 깨어 보니, 형용이 단정한 남자아이가 있었다. 놀랍고 이상하게 여겨 東泉(東泉寺는 詞腦野 북쪽에 있다)에 목욕시키니, 몸에는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따라서 춤추고 天地가 진동하였으며 日月이 맑게 빛났다. 따라서 혁거세왕(아마도 鄉言 일 것이다. 혹은 弗矩內王이라고도 한다. 光明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다)이라고 이름하였다. … ④ 이 때 사람들이 다투어 축하하며 “지금 天子가 이미 내려왔으니, 마땅히 덕이 있는 女君을 찾아 배필을 정해야 하겠다”고 하였다. … 二聖의 나이 13세에 이르러 오봉 원년 갑자에 남자 아이를 세워서 왕으로 삼고, 이에 여자아이는 后로 삼았다. 국호는 徐羅伐이다.⁸⁾

위의 사료 B-2)①에 따르면 6촌장들이 關川 언덕 위에 모여 우리들이 위로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임금이 없어 백성들이 모두 방종하여 제멋대로 놀고 있으니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그를 임금으로 삼아 나라를 창건하고 도읍을 정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 때 B-1)②를 보면 고허촌장 소벌공이 혁거세를 맞이한 것으로 나온다. B-2)에서는 그 주체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B-2)①의 6촌장 회의와 B-2)④에서 사람들이 다투어 경하하기를 천자가 이미 내려왔다고 한 점에서 혁거세를 맞이하는데 6촌장들이 모두 개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B-1)④와 B-2)④에서 6촌장들은 혁거세가 10여세(13세)가 되자 왕으로 세웠다.⁹⁾

7)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시조 혁거세거서간 원년.

8) 『삼국유사』 권1, 기이2 신라시조 혁거세왕.

9) 6촌장 신화와 관련해서 김두진, 2003, 「신라 六村長神話의 모습과 그 의미」, 『신라문화』 21 : 채미하, 2011, 「신라의 6촌과 산악제사」, 『신라사학보』 23 등 참조.

6촌장들이 혁거세를 왕으로 追尊한 이유는 B-1)④을 보면 “그 출생이 신이했기 때문”이었다. 혁거세의 출생에 대해 우선 B-1)②에서는 “나정 옆 수풀 사이에서 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이에 가서 보니 갑자기 말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며 B-2)②에서는 “양산 나정 옆에 이상한 기운이 번개처럼 땅에 드리우더니, 흰 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혁거세의 출생에는 우선 백마가 등장하는데, 백마는 신령스럽고 상서로운 동물로 고대 동·서양의 여러 나라에서 숭배되었다. 뿐만 아니라 말은 성스러운 인물의 降臨을 알리는 사자 즉 天馬로 보았다.¹⁰⁾ B-2)③에서 “말은 사람을 보자 길게 울며 올라갔다”고 한데서도 알 수 있다.

혁거세는 B-1)③에서 큰 알[大卵], B-2)③에서는 ‘자줏빛 알[紫卵]’ 혹은 ‘푸른색의 큰 알[靑大卵]’로 태어난다. 주몽·탈해·수로 등의 건국신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알은 생명의 원천 혹은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알에서 태어난 혁거세는 B-2)③에서 형용이 단정하였으며 東泉에서 목욕을 시키니 몸에서는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춤을 추며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맑게 빛났다고 하였다.

이처럼 혁거세의 출생은 신이하였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B-2)④에서 알 수 있듯이, 6촌장들은 그를 天子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삼국사기』를 보면 6촌은 朝鮮遺民들이 구성하였는데, 여기에는 6촌의 시조명이 보이지 않는다.¹¹⁾ 반면 『삼국유사』에는 6촌명과 6촌의 시조명 그리고 그들이 하강한 장소가 나온다. 즉 關川楊山村 村長인 謁平은 瓢巖峰, 突山高墟村의 촌장인 蘇伐都利는 兄山, 茂山大樹村 촌장인 俱(仇)禮馬는 伊山(皆比山), 鶯山珍支村 촌장인 智伯虎는 花山, 金山加里村 촌장인 祗沓(只他)는 明活山, 明活山高耶村 촌장인 虎珍은 금강산에 내려왔다고 한다.¹²⁾

일연은 6촌의 조상들이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고 하였지만, 6촌의 시조들은 峰 또는 山에 내려왔다고만 되어 있고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

10) 혁거세의 출생에 말이 관련되는 점에서 박씨족을 기마술에 익숙한 北方 유이민 계통으로 파악하기도 한다(김철준, 1975, 「신라 상고세계와 그 기년」, 『한국고대사학회연구』, 지식산업사, 72~73쪽).

11)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시조혁거세거서간 원년.

12) 『삼국유사』 권1, 기이2 신라시조 혁거세왕.

해서는 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혁거세가 등장하면서 천과 연결되어 있었던 6촌의 시조 전승이 혁거세 신화 속으로 흡수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혁거세의 신이한 출생을 통해 6촌장들은 혁거세를 천자로 여겼고 이후 왕으로 삼았으며, 죽은 후 시조로 모시면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던 그들의 신성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남해왕 3년 ‘시조’ 혁거세묘가 세워진 이후 소지왕대까지 신왕들은 시조묘에 親祀(謁)하고 있다. 신라 상고기, 특히 이사금기는 3성집단의 연맹을 토대로 전개되었고, 당시 이들 집단은 자신들의 족조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신라 상고기 내내 박씨왕의 족조인 혁거세가 시조묘에서 친사(알)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C. 2월 國祖廟에 親祀하였다.¹³⁾

위의 사료 C에 따르면 미추왕은 왕 2년(263)에 국조묘에 친사하였다고 한다. 국조는 국가의 시조인 건국조를 말하며, 사로국의 건국조는 혁거세이다. 이로 볼 때 미추왕이 친사했던 국조묘는 혁거세묘, 곧 시조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박씨왕들의 족조이기도 하였고 사로국의 건국조인 혁거세가 신라 상고기 어느 시점부터 신라 연맹체의 국조로 자리잡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¹⁴⁾

D. 봄 2월에 시조묘를 重修하였다.¹⁵⁾

위의 사료 D에 따르면 아달라왕 17년(170)에 시조묘를 ‘중수’하였다고 한다. ‘중수’는 낡은 것을 새로 고친다는 뜻이므로, 아달라왕은 남해왕이 설립한 ‘시조’ 혁거세묘를 보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때의 시조묘 ‘중수’는 시조묘의 단순한 보수가 아닌 시조묘와 제사대상이었던 혁거세의 위상 제고와 관련 있었을 것이다.¹⁶⁾ 이와 관련해서 연오랑·세오녀 설화가 관심을

13)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미추이사금 2년.

14) 채미하, 2008, 앞의 책, 65~66쪽.

15)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아달라이사금 17년.

16) 채미하, 2008, 앞의 책, 70~71쪽. 아달라왕 17년의 “重修始祖廟”를 신라에 병합

끈다.¹⁷⁾

우선 연오랑·세오녀 부부의 일본 도래는 아달라왕대 신라 연맹체에 소속되어 있었던 일부 정치세력집단의 이탈과 관련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연오랑·세오녀 부부의 이탈로 신라의 일월이 빛을 잃게 되었다는 것은 신라 연맹체에 소속된 각 소국들이 독자적인 제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연맹체의 맹주국인 사로국의 祭天과 공존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세오녀가 짠 비단으로 하늘에 제사지내자 일월이 원상 복구되었다는 것은 각 소국의 제천이 아달라왕대에 사로국의 제천에 흡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하늘에 제사지낸 비단을 어고에 두고 국보로 삼았다는데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로써 아달라왕대 하늘에 대한 제사권은 신라 연맹체의 연맹장이 장악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⁸⁾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면 아달라왕대 각 소국의 제천은 사로국을 중심으로 통합되었는데, 그 역할을 한 것이 당시의 국가제사였던 시조묘가 아니었을까 한다. 따라서 박씨집단의 족조인 혁거세는 신라 연맹체의 국조로 자리잡았고, 이러한 혁거세의 위상 변화는 아달라왕 17년 시조묘 중수로 이어졌다고 여겨진다. 시조묘는 혁거세릉이거나 능 부근에 있는 제사처를 말하는 것으로, 혁거세가 묻힌 장소와 관련있는 곳에 두어졌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이 주목된다.

E-1) 봄 3월 居西干이 승하하자, 蛇陵에 장사지냈다. 曇巖寺 북쪽에 있다.¹⁹⁾

E-2) ①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에 왕이 天에 올랐다. 7일 후 遺體가 땅에 떨어졌다. ② 后 또한 죽었다. 國人이 혁거세와 合葬하고자 하였으나, 大蛇가 쫓아와 禁하였다. ③ 五體를 각각 장사지냈는데, 五陵이라 했다. 또한 사릉이라고도 한다. 담업사 北陵이 그것이다.²⁰⁾

위의 사료 E-1)에서는 거서간이 승하하자 사릉에 묻혔다고 한다. 이에

된 진한 제국의 제천행사가 신라 왕실의 제천행사에 흡수된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신종원, 1992,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73~74쪽)

17) 『삼국유사』 권1, 기이2 연오랑·세오녀.

18) 이상은 재미하, 2008, 앞의 책, 67~70쪽.

19)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시조혁거세거서간 61년.

20) 『삼국유사』 권1, 기이2 신라시조 혁거세왕.

대해 E-2)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데, 우선 사료 E-2)③에 따르면 혁거세의 5체를 묻어 오룻이라 하였는데 사룻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삼국사기』에는 혁거세의 비인 알영, 2대 남해·3대 유리·5대 파사의 陵墓로 전하고 있다. 아달라왕대 당시 오룻은 『삼국사기』에 전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료 E-2)①에서 혁거세가 승천하였다가 7일 후 유체가 땅에 떨어졌고, E-2)③에서는 이것을 각각 묻었다고 하였다.²¹⁾ 이러한 혁거세의 죽음과 오룻 관련 전승은 아달라왕대 시조묘 중수 때 재조명되지 않았을까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혁거세는 신이하게 출생하였고 당시 혁거세는 하늘의 아들(天子)로 여겨졌다. 혁거세의 또 다른 이름인 弗矩內王은 광명으로써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그리고 혁거세는 나라를 다스린지 61년에 승천하였다. 이처럼 혁거세는 출생 뿐만 아니라 죽음 역시 천과 연결되어 있었다.²²⁾ 이를 통해 혁거세의 천신적 신성성은 더욱 부각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혁거세의 신성성은 오룻 관련 전승을 통해 더욱 강조되지 않았을까 한다. 따라서 아달라왕대 시조묘가 중수된 이후 혁거세가 묻힌 곳은 오룻으로 여겨졌으며, 혁거세릉=오룻이라는 인식은 후술되는 사료 K-1)④에서 알 수 있듯이 후대까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의 사료 E-2)②를 보면 나라 사람들이 알영과 합장하려고 하였지만, 뱀의 방해로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다음은 알영 신화이다.

F-1) ① 봄 정월, 용이 關英井에서 나와 右脇에서 女兒를 낳았다. 老嫗가 보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 거두어 길렀다. 우물 이름으로 이름하였다. ② 성장함에 德容이 있었다. 시조가 듣고 맞아서 妃로 삼았다. 賢行이 있고 內輔가 能하여, 이 때 사람들이 二聖이라 일렀다.²³⁾

21) 이와 관련해서 김선주는 2010, 앞의 논문, 187~186쪽에서 오룻의 주인공은 알영이었지만, 후대 혁거세를 중심으로 건국신화가 재정비되면서 알영의 죽음이 혁거세 신화에 부회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혁거세 신화를 보면 뱀의 방해로 알영은 혁거세와 합장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오룻과 알영을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22) 혁거세의 천신적 성격과 관련하여 신종원, 1992, 앞의 책, 71~72쪽과 98쪽 ; 김두진, 1989, 앞의 논문, 40쪽 ; 나희라, 2003, 앞의 책, 70~73쪽 참조.

23)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시조혁거세거서간 5년.

F-2) ① 이 날, 沙梁里의 알영정(娥利英井이라고도 한다)가에 雞籠이 나타나 左脇에서 童女(용이 나타나 죽자 그 배를 갈라서 얻었다고도 한다)를 낳았다. ② 姿容이 수려하였으나, 입술이 닭의 부리와 비슷하여 月城의 北川에서 목욕시켰더니 그 부리가 떨어졌다. 따라서 그 川 이름을 撥川이라 했다.²⁴⁾

위의 사료 F-1)①과 2)①을 보면 알영정에서 용(계룡)이 나타나 알영을 낳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출생한 알영은 사료 F-2)②를 보면 용모가 아름다웠으나, 입술이 닭의 부리와 같아 월성 북천에 목욕시키자 떨어졌다고 한다. 이것은 혁거세가 태어나면서 동천에서 목욕한 모티브와 유사하다. 그리고 F-1)②를 보면 알영은 혁거세의 비가 된 이후 혁거세를 잘 보필하였다고 한다. 이로 볼 때 알영은 혁거세 재위기간 동안 중요한 파트너였음을 알 수 있다.²⁵⁾ 그런데 사료 E-2)②에서는 이와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아달라왕대 시조묘 중심으로 제천이 통합되고 혁거세의 위상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다른 세력, 특히 알영 세력을 배타시킨 내용이 혁거세 신화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건국신화와 神宮

신라의 신궁 설치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G-1) 봄 2월, 神宮을 奈乙에 설치(置)했다. 나을은 始祖가 初生한 곳이다.²⁶⁾

G-2) 제22대 智證王이 시조가 誕降한 땅인 나을에 신궁을 創立함으로써, 그곳에서 제사지냈다.²⁷⁾

위의 사료 G-1)에 따르면 소지왕 9년(487)에 ‘始祖가 初生한 곳’인 ‘奈乙’에 신궁을 설치(‘置’)하였다고 하고, G-2)에는 지증왕이 ‘시조가 誕

24) 『삼국유사』 권1, 기이2 신라시조혁거세왕.

25) 이와 관련해서 혁거세 17년에 혁거세가 육부를 巡撫할 때 알영이 함께 따라갔다고 한 것도 참고된다.

26)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9년.

27) 『삼국사기』 권32, 잡지1 제사.

降한 땅'인 '나을'에 신궁을 '創立'하였다고 되어 있다.

우선 신궁이 설치된 시기에 대해 G-1)에서는 소지왕 9년이라고 하고, G-2)에서는 지증왕이라고 하여 다르게 나온다.²⁸⁾ 그런데 소지왕 17년과 지증왕 3년(502)에 왕은 신궁에서 친사하고 있다.²⁹⁾ 이로 볼 때 시조를 모신 신궁은 소지왕 9년에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지왕대 설치된 신궁은 지증왕이 처음으로 신궁에서 친사한 이후 중고기 대부분의 왕들은 여기에서 친사하였다. 신궁에 모신 시조와 관련해서는 다음이 주목된다.

H. 겨울 10월 羣臣들이 아뢰었다. “始祖가 創業한 이래 나라 이름이 정해지지 않아 혹은 斯羅라고 하고 혹은 斯盧라고 하며 혹은 新羅라고도 하였다. 臣等이 생각하기를 新者は 德業日新이고 羅는 網羅四方의 뜻인 즉 그것을 국호로 삼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옛부터 국가를 가진 자는 모두 帝나 王을 칭했는데, 우리 시조가 나라를 세운 이후 지금의 22世에 이르기까지 단지 方言으로 칭하고 尊號를 정하지 않았으니, 지금 군신은 한 뜻으로 삼가 新羅國王이라는 호를 올립니다”. 왕이 그것을 따랐다.³⁰⁾

위의 사료 H에서 지증왕은 여러 신하들의 건의에 따라 국호를 '新羅'로 하고 중국식 '王'호를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始祖가 創業한 이래”와 “우리 시조가 나라를 세운 이후 지금의 22世에 이르기까지”가 눈에 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지증왕은 혁거세로부터 따질 때 제22대 왕이다. 이로 볼 때 지증왕대 시조는 혁거세가 되며, 신궁의 시조 역시 혁거세라 할 수 있다.³¹⁾ 그리고 사료 H는 시조 혁거세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왕의 계보가 이 때 확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의 사료 G에 보이는 시조 출현과 관련된 표현 중 ‘初生’ 보다

28) 신궁 설치시기와 관련해서 채미하, 2004, 「신라의 신궁제사」, 『전통문화논총』 2 : 2008, 앞의 책, 80~82쪽.

29)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7년.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3년.

30)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4년.

31) 신궁의 시조에 대해서는 혁거세설과 김씨 시조설로 대별된다. 김씨 시조로는 알지, 미추, 나물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궁의 주신을 자연신, 천지신으로 보기도 하며 혁거세와 알영 2인이라고도 한다. 이와 관련해서 채미하, 2008, 앞의 책, 82~85쪽.

는 ‘誕降’했다는 것이 보다 본질적인 것이라고 한다.³²⁾ 그러하다면 신궁 설치 기사에서 ‘誕降’이라는 표현은 시조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왕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도 관심을 끈다.

I. 2월, 歷代園陵을 修葺하였다. 여름 4월, 始祖廟에 제사하였다.³³⁾

사료 I에 따르면 눌지왕은 왕 19년(435) 2월에 역대원릉을 修葺하고 있다. 여기에서 ‘園陵’은 왕릉을 말하는 것으로,³⁴⁾ ‘역대원릉’은 혁거세 이후의 박·석·김씨 왕들의 陵이라고 할 수 있다. ‘修葺’은 ‘집을 손질하고 지붕을 새로 잇는다’는 뜻이다. 이로 볼 때 눌지왕 19년에 역대원릉을 수습하였다는 것은 역대왕릉에 딸린 건물들을 보수·정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역대왕릉을 정비하면서 눌지왕은 역대 왕의 계보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그 해 4월에 시조묘에 갔다. 이것은 눌지왕이 시조인 혁거세에게서 그것을 인정받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파악된다.³⁵⁾

이처럼 김씨왕실은 혁거세를 시조로 생각하였고, 신궁의 주신으로 모셨다. 다 아다시피 김씨왕실의 시조는 알지이다.³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씨왕실이 혁거세를 시조로 모신 이유는 무엇일까. 삼국의 시조묘와 신라의 신궁은 특정 왕계의 혈연적 계보관념에 의한 직계 조상이 아니라 쏠 국가적 ‘시조’왕을 제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당시 연맹체적 질서를 극복하지 못한 정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며, ‘시조’왕은 하늘의 자손으로 천신과 연결되어 있었다.³⁷⁾ 이로 볼 때 신라의 시조묘제사와 신궁제사에서 시조는 혈연적 계보를 초월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⁸⁾ 신궁단계의 혁거세신화와 관련해서는 다음이 주목된다.

32) 나희라, 2003, 앞의 책, 149쪽 주 47) 참조.

33)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눌지마립간 19년.

34) 園陵은 陵, 곧 왕릉을 뜻한다(諸橋轍次, 1957, 『大漢和辭典』 3, 大修館書店, 93쪽).

35) 사료 I에 대한 해석은 채미하, 2008, 앞의 책, 92쪽 참조.

36)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탈해이사금 9년 : 『삼국유사』 권1, 기이2 김알지 탈해왕대.

37) 이와 관련해서 이은봉, 1984, 「천신의 대리자로서의 시조신신앙」, 『한국고대종교사상-천신·지신·인신의 구조』, 집문당 참조.

38) 채미하, 2012, 「한국 고대의 죽음과 상·제례」, 『한국고대사연구』 65, 62쪽.

J-1) … 位號는 居瑟邯이라고 한다(혹은 居西干라고도 한다. 처음 입을 열었을 때 스스로 칭하기를 閔智居西干이 一起한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그 말로 칭했으니, 이후로부터 王者의 존칭이 되었다) … J-2) ① 국호는 徐羅伐 또는 徐伐 혹은 斯羅 또는 斯盧라고 한다. 처음에 왕이 雞井에서 태어났다. 때문에 혹은 雞林國이라고 하였고 그 雞籠으로써 상서로움을 나타냈다. ② 一說에 脫解王 때 김알지를 얻었는데, 수풀 속에서 닭의 울음이 있어 이에 국호를 계림으로 고쳤고, 후세에 드디어 신라라는 號를 정했다고 한다.³⁹⁾

위의 사료 J-1)을 보면 혁거세의 位號는 거슬한(거서간)인데, 혁거세가 처음 말할 때 스스로 일컫기를 알지거서간이 한번(크게) 일어난다고 하였기 때문에 칭했다고 하며, 그 후로는 왕자의 존칭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J-2)①에서 국호는 서라벌 또는 서벌, 사라 또는 사로라고 하는데 처음에 왕이 雞井에서 났기 때문에 혹은 雞林國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앞의 사료 J-1)에서 거슬한이라는 위호는 알지와 연결되어 있다.⁴⁰⁾ 그리고 국명인 계림국은 왕이 계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하였지만, 계림국은 알지와 관련된 국명이다.⁴¹⁾ 이것은 알지신화 뿐만 아니라 J-2)②의 一說에서 탈해왕 때에 김알지를 얻으면서 숲속에서 닭이 울었으므로, 나라 이름을 鷄林으로 했다는데서도 알 수 있다.⁴²⁾ 이처럼 혁거세신화에는 김씨왕실의 시조인 알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와 같이 김씨왕실은 혁거세에 대한 제사를 새로 설치하였고 혁거세를 시조로 하는 왕계를 확립하였으며, 자신의 시조인 알지는 혁거세 신화에

39) 『삼국유사』 권1, 기이2 신라시조 혁거세왕.

40) 서철원은 2012, 「朴·昔·金 시조신화의 대비를 통해 본 新羅 始祖 관념의 형성 단서」, 『신라문화』 40, 8~9쪽에서 박혁거세가 처음으로 했던 말은 알지거서간의 출현을 예언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알지가 혁거세와 같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삼국유사』 제4탈해왕조에서 탈해왕이 시림에 가서 쉼을 열고 보니 그 속에 동남 하나가 누워 있다가 일어났는데, 마치 혁거세의 고사와 같았다고 한 표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41) 김선주, 2010, 앞의 논문, 178~179쪽에서 계림국이라는 국호를 알영과 관련지어 이해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이 기사는 알영과 알지의 내용이 혼용되어 있는 것으로, 국호는 알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42) 서철원은 2012, 앞의 논문, 8~9쪽에서 '계림'이라는 국호를 통해 박혁거세와 김알지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부회하였다. 이를 통해 혁거세의 신성성은 더욱 부각되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진평왕이 즉위 원년(579) 上皇이 보낸 天使로부터 옥대를 받고 이것을 “凡郊廟大祀皆服之”했다고 한 것이 관심을 끈다. 여기에서 ‘郊廟’는 神宮이며 ‘郊廟大祀’는 ‘교묘와 같은 큰 제사’로 해석된다.⁴³⁾ 천사옥대는 신라 삼보의 하나로, 진평왕은 上皇에게서 받은 천사옥대를 큰 제사인 신궁 제사 때 착용하였다. 이를 통해 왕의 권위는 직접적으로 상황, ‘천’에 의해 보증받고 있음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⁴⁴⁾

한편 혁거세를 모신 신궁은 始祖가 初生(誕降)한 장소인 奈乙에 설치되었다. 혁거세가 初生(誕降)한 장소에 대해 앞의 사료 B-1)②에서는 ‘양산 기슭 나정 옆의 숲 사이’, B-2)②에서는 ‘양산 아래 나정 옆’이라고 전한다. 여기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양산과 나을이다. 양산은 경주 남산의 일부로, 경주 남산은 신라의 왕도였던 경주의 남쪽에 솟아 있는 金鰲山과 高位山 두 봉우리를 비롯하여 도당산·양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을은 시조가 초생(탄강)한 장소로, 혁거세가 양산 기슭(아래) 나정 옆에서 출생하였다는 점에서 나정은 나을로 여길 수 있다.⁴⁵⁾

산(숲과 나무)은 고대인들에게 신들이 하강하거나 거주하는 곳으로 생각되었으며 생명력의 상징으로 신성성을 나타내었다. 단군신화에서 천제의 아들 환웅이 하늘로부터 신단수 아래에 하강하였다는가,⁴⁶⁾ 알지 신화에서 始林 숲에 빛이 비치며 나뭇가지에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 꿩이 걸려있고 그 나무 아래에서 백계가 울고 있다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井(淵, 泉(川), 江(河), 海)은 물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생명 자체도 근원적으로는 물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井, 淵, 泉(川), 江(河), 海의 물은 생명의 원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주몽신화에서 하백의 딸이 웅심산 아래 압록강에서 살며, 여기

43) 교묘대사와 관련된 제견해는 채미하, 2008, 앞의 책, 101~102쪽.

44) 한편 東泉寺는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을 때 목욕한 동천에 건립한 사찰이다. 『삼국유사』 원성대왕조에 따르면 경주에는 세 마리의 護國龍이 살고 있는 우물이 셋 있었는데, 동천사에 있는 淸池와 東池, 芬皇寺의 우물이 그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동해의 용왕이 동천사에 자주 와서 법문을 들었고, 진평왕이 五百聖衆의 봉안과 함께 오층탑을 세웠으며 전답을 헌납하였다고 한다.

45) 채미하, 2008, 앞의 책, 84~85쪽.

46) 『삼국유사』 권1, 기이2 고조선.

서 천제의 아들을 만났다는 것이나,⁴⁷⁾ 앞의 사료 F에서 알영이 알영정에서 나온 계룡으로부터 출생하였다고, 탈해가 바다에서 왔고⁴⁸⁾ 후술되는 사료 O에서 ‘葬疏川丘中’, ‘水葬未召疏井丘中’ 했다는데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산 그리고 물과 관련된 다양한 장소는 제사를 지내는 장소, 제장이 되기도 하였다. 『삼국유사』 제사지 신라조를 보면 ‘三山·五岳以下名山大川 分爲大·中·小祀’라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 제사대상이면서 제장으로 대사인 3산, 중사인 오악·사진·사해·사독과 기타 6곳, 소사인 24개 제산천이 나온다. 그리고 문열림은 일월제와 사천상제의 제장 중 하나였고, 박수는 사천상제의 제장 중 하나였다. 혜수는 기우제의 제장이었고 침병수는 사대도제의 남쪽 제장이었다. 대정문은 사성문제의 제장 중 하나였고, 청연은 사천상제의 제장 중 하나였다. 탁저는 우사제의 제장이었고 견수는 사천상제의 제장 중 하나로, 이 곳은 지형상 ‘곡’이면서 ‘천’이 인접하고 있다.⁴⁹⁾

이로 볼 때 신궁단계의 혁거세는 다양한 문화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 성격 역시 천신적인 모습 뿐만 아니라 산신·수신적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김씨 왕실은 6촌장의 후손을 위시하여 알지와 알영, 탈해와 신라에 병합된 다양한 세력들을 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그리고 신궁이란 神을 제사하는 곳을 말한다.⁵⁰⁾ 이러한 신궁은 郊廟라고도 하였다. 郊는 원래 중국에서 천지신을 제사하는 장소이고, 郊祀는 그 제사를 의미한다. 신궁의 宮은 廟와 동일한 의미로⁵¹⁾ 묘는 조상을 제사하는 장소이다. 이처럼 신궁의 명칭에서도 신궁이 다양한 문화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궁단계에서 혁거세가 다양한 세력을 포용하였음은 건국신화에서도 알 수 있다. 우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혁거세신화에 알지와 관련된 내용이 부회되어 있다. 그리고 알지신화를 보면 알지는 탈해왕대 천강하며 탈해왕의

47) 『삼국유사』 권1, 기이2 고구려.

48)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탈해이사금 즉위년 및 『삼국유사』 권1, 기이2 제4탈해왕.

49) 이와 관련해서 채미하, 2006, 「신라의 농경제사와 ‘별제」, 『국사관논총』 108 : 2008, 앞의 책, 286~293쪽 참조.

50) 신종원, 1992, 앞의 책, 82쪽 註 76) 참조.

51) 池田末利, 1981, 「附釋廟」, 『中國古代宗教史研究－制度と思想』, 東海大學出版社, 328~329쪽 ; 서영대, 1997, 「서평－『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최광식 저」, 『한국사연구』 98 : 나희라, 2003, 앞의 책, 157쪽.

태자로 책봉되었다고 한다. 탈해는 혁거세왕의 해척모인 아진의선에 의해 봉양되었으며 남해왕의 장공주와 결혼한다.⁵²⁾ 이와 같이 신라의 건국신화에는 혁거세, 알지, 탈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각각의 시조전승이 신라의 건국신화 속에 흡수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⁵³⁾

뿐만 아니라 앞의 사료 F-1)①을 보면 알영은 혁거세거서간 5년(B.C.53)에 태어났고, F-2)①에는 前漢 地節 元年(B.C.69) 壬子 三月朔, 즉 혁거세와 같은 해에 알영이 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알영의 출생 시기에 대해서 다른 전승이 보인다. 그리고 사료 J-2)①에서 혁거세는 나정이 아닌 雞井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 계룡이 상서를 나타냈다고 한다.⁵⁴⁾ 이것은 사료 F에서 알 수 있듯이 알영 출생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기서 계정은 알영이 태어난 알영정으로 여길 수 있다. 이로 볼 때 혁거세신화에는 알영의 전승도 투영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다면 알영이 혁거세와 같은 해 출생하였다는 전승은 신궁단계의 혁거세가 알영을 포용하였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4. 건국신화와 五廟

다음은 오묘 관련 기사이다.

K. 1) 36대 해공왕대 大曆 14년 己未 4월 ... ① 未鄒의 靈이 아니었다면 金公의 노여움을 막지 못했을 것인데, 미추왕이 나라를 보호함은 크지 않음이 없다. ② 이 때문에 邦인이 그 德을 사모하여 ③ 三山과 同祀하고 떨어뜨리지 않았고 ④ 秩을 五陵의 위에 놓았으며 ⑤ 大廟라고 칭했다고 한다.⁵⁵⁾

52) 『삼국유사』 권1, 기이2 제4탈해왕과 김알지 탈해왕대 참조. 김두진, 1999, 앞의 책, 323쪽 ; 2005, 앞의 논문, 6쪽에서 탈해와 알지신화는 사로국 개국신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으나, 신라 건국신화 속에 흡수되었을 것이라고도 하였다.

53) 김두진, 1999, 위의 책, 326쪽.

54) 앞에서 필자는 이 전승을 김알지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닭'이 지닌 상징성 때문이었을 것이다(서철원, 2012, 앞의 논문, 9쪽).

55) 『삼국유사』 권1, 기이2 미추왕 죽엽군.

2) 신라의 중요제를 살펴보면 … 제36대 혜공왕대에 이르러 五廟를 始定하였는데, 미추왕을 김성시조로 삼고 태종대왕·문무대왕은 백제·고구려를 평정한 큰功德이 있어 함께 대대로 不毀之宗으로 삼고 親廟 둘을 겸하여 오묘로 하였다.⁵⁶⁾

위 사료 중 K-1)③은 “삼산과 동격으로 (미추왕을) 제사하고 (그 격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K-1)④는 “(미추왕의) 격을 오릉⁵⁷⁾의 위에 놓았다”로 해석할 수 있다.⁵⁸⁾ 그러하다면 위의 내용은 미추왕에 대한 제사가 삼산에 대한 제사와 동격이고, 미추왕은 오릉보다 상위에 두어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오릉은 앞서서도 보았듯이 아달라왕대 혁거세가 신라 연맹체의 국조, 건국시조로 인식되면서 혁거세릉=오릉으로 여겨졌다고 하였다. 미추왕은 사료 K-2)를 보면 혜공왕대 오묘가 ‘시정’되면서 김성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혜공왕대 ‘시정’된 오묘는 개정된 오묘제로, 다음은 신라의 오묘제 시정 기사이다.

L. 여름 4월, 대신을 祖廟에 보내어 치제하며 말하기를, “王某는 머리를 조아리고 再拜하면서 太祖大王·眞智大王·文興大王·太宗大王·文武大왕의 靈에게 삼가 말씀을 올립니다. …” 하였다.⁵⁹⁾

위의 사료 L에 따르면 신문왕 7년(687) 4월 당시 ‘祖廟’(이하 五廟라 함)에 태조대왕과 신문왕의 고조인 진지대왕, 증조인 문흥대왕, 祖인 태종대왕, 考인 문무대왕의 신위가 모셔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오묘 구성은 『예기』 왕제편의 “諸侯五廟 二昭二穆與太祖之廟而五”라고 한 규정에 맞

56) 『삼국사기』 권32, 잡지 제사.

57) 최광식은 김씨왕실에서 오묘제를 시행하자, 박씨들도 오묘를 만들었는데, 무덤에 사당을 만들어 오릉을 오묘로 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1995, 「신라 상대 왕정의 제장」, 『신라왕경연구』(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16), 75~76쪽 및 1997, 「신라의 건국신화와 시조신화」,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8쪽). 하지만 당시 박씨세력이 왕실과 같은 오묘를 구성하였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58) 채미하, 2000, 「신라 혜공왕대 오묘제의 개정」, 『한국사연구』 108 : 2008, 앞의 책, 177~178쪽.

59)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7년.

는다. 이로 볼 때 신라에서는 ‘제후오묘’의 원칙에 입각한 오묘제가 신문왕 7년 4월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⁶⁰⁾ 이와 관련해서 다음도 주목된다.

M. 2월, 有司에게 명하여 諸王陵園에 民을 옮겼는데, 각 20호이다.⁶¹⁾

위의 사료 M에서 ‘諸王陵園’의 ‘諸王’은 문무왕 이전의 왕들을 가리키며 ‘陵園’은 왕릉의 뜻이다.⁶²⁾ 이로 볼 때 사료 M에서 문무왕 이전의 왕릉에 백성 20호씩을 사민한 것은 이전의 王陵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일련의 조처였다고 짐작된다. 여기에는 박씨왕릉, 석씨왕릉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문무왕은 역대 왕릉 중에서 김씨왕, 그 중에서도 자신의 직계 왕의 능인 무열왕릉과 진지왕릉, 대왕으로 추봉된 문흥대왕의 능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⁶³⁾

김씨왕실은 김성 칭성 이유와 관련해서 이미 계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중대 왕실은 그것을 중국 上古 전승에 나오는 少昊金天氏에서 찾았다.⁶⁴⁾ 그리고 오묘제가 시정된 후 종묘의 首位인 태조대왕에 少昊金天氏에 연원을 둔 星漢⁶⁵⁾을 모셨다. 이러한 변화는 김성의 시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이 주목된다.

N. 1) 따라서 이름을 혁거세왕이라고 했다(아마도 鄉言일 것이다. 혹은 弗矩內王이라고도 하며 光明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다. ① 說者が 말하기를

60) 오묘제 시정과 관련해서 재미하, 2002, 「신라 종묘제의 수용과 그 의미」, 『역사학보』 176 : 2004, 「신라의 오묘제 ‘시정’과 신문왕권」, 『백산학보』 70 : 2008, 앞의 책.

61)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4년.

62) 陵園은 天子의 陵이라고 한다(諸橋徹次, 1956, 『大漢和辭典』 11, 大修館書店, 899쪽).

63) 재미하, 2008, 앞의 책, 127~128쪽.

64) 소호금천씨와 관련해서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20년 사론 및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30년 사론과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상). 이문기, 1999, 「신라 김씨 왕실의 소호김천씨 출자 관념의 표방과 그 변화」, 『역사교육논집』 23:24, 669~672쪽 : 재미하, 2008, 앞의 책, 132쪽 참조.

65) 태조에 대한 해석과 태조=성한에 대해서 재미하, 2008, 앞의 책, 129~132쪽 참조.

“이는 西述聖母가 낳은 것이다. 때문에 중국 사람이 仙桃聖母를 찬미하는 글에 ‘어진 인물을 배워 나라를 창건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다. ② 이에 이르러 雞籠이 상서를 나타내어 알영을 낳았으니, 또한 西述聖母가 현신한 바가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⁶⁶⁾

2) ① 神母는 본래 中國帝室의 딸이다. 이름은 娑蘇이다. 일찍이 神仙의 술법을 배워 海東에 와서 머물러 오랫동안 돌아가지 않았다. 아버지인 황제는 서신을 발에 매어 말하기를, “鳶이 머무는 곳을 따라 집을 삼거라”고 하였다. 사소는 서신을 보고 매를 놓아 보냈는데, 매는 이 산에 날아와 멈추었다. 마침내 가서 살며 地仙이 되었다. 때문에 西鳶山이라고 이름하였다. ② 神母는 오랫동안 이 산에 據하면서 나라를 鎮祐하였는데, 靈異함이 아주 많았다. 나라가 건립된 이래로 항상 三祀의 하나였고 秩은 群望의 위에 있었다. … ③ 그가 처음 진한에 와서 聖子를 낳아 東國의 처음 임금이었다. 아마도 혁거세와 알영 二聖을 낳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雞籠·雞林·白馬 등으로 일컬으니, 닭은 西쪽에 속하기 때문일 것이다.⁶⁷⁾

위의 사료 N-1)①에서 說者가 말하기를 西述聖母가 혁거세를 낳았다고 전하는데, N-2)①에서 신모는 중국 제실의 딸인 사소로 진한에 와서 성자를 낳았고 동국의 처음 임금이 되었다고 하며, N-1)②을 보면 雞籠이 祥瑞를 나타내어 알영을 낳았으며 이것을 서술성모의 현신으로 보았다. 그리고 N-2)③에서는 혁거세와 알영의 유래를 서술성모(선도성모)에서 찾고 있다. 이것은 혁거세가 양산 기슭에 내려온 큰 알에서 태어났으며 알영이 계룡에서 태어났다는 것과는 다른 전승이다.

한 집단의 근원이 되는 시조가 여성에 있다는 시조모에 대한 관념은 대체로 부계 중심 신화 이전에 모계 중심으로 서술하는 신화적 전통에 있다고 한다.⁶⁸⁾ 이것은 부여의 侍婢나 고구려의 유화, 대가야의 정견모주 등에서 알 수 있다. 신라의 경우도 앞의 사료 N에서 알 수 있듯이, 선도성모로 대표되는 시조모에 대한 전승이 시조와 시조비 이전 단계에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N-2)②에서 신모가 웅거한 산인 서연산(선도산)은 나라가 건립된 이래 언제나 三祀의 하나였고 그 차례도 여러 望祭의 위에 있

66) 『삼국유사』 권1, 기이2 신라시조혁거세왕.

67) 『삼국유사』 권5, 감동7 선도성모수희불사.

68) 조현철, 2003,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 지성사, 257~258쪽.

었다고 한다. 이 점에서 서연산(선도산)은 진평왕대를 전후한 시기에⁶⁹⁾ 최고의 신성산악으로 숭앙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삼국사기』 제사지를 보면 서술=서연산(선도산)은 소사에 편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서연산(선도산)=서술이 국가제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는 시조모 전승의 변화와도 관련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의 사료 N-2)①을 보면 선도성모는 中國帝室의 딸이라고 한다. 이것은 중대왕실이 자신의 시조를 소호금천씨에서 찾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신모는 地仙이라고 하였는데, 부여의 侍婢나 고구려의 유향, 대가야의 정견모주는 천신과 결합되어 있다. 그러하다면 천신과 결합되지 않은 시조모=선도성모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는 혁거세는 그가 지닌 천신적 성격이 중대 이후 탈각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앞의 사료 N-2)③에서는 선도성모에서 혁거세와 알영의 유래를 찾으면서 “계룡, 계림, 백마 등으로 부르는 것은 닭이 서쪽에 속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닭=酉方=서방, 백마의 백=서방으로 서연산과 연결된다. 알영의 출생에는 계룡이 등장하며, 알지가 태어난 곳은 계림이며 혁거세의 탄생에는 백마가 나온다. 이로 볼 때 사료 N-2)③에서 계룡, 계림, 백마를 서쪽과 연결시킨 것은 알영, 알지, 혁거세 탄생의 유사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도 주목된다.

O. 1) ① 재위 23년 建初 4년 己卯에 죽었다. 疏川丘 속에 장사지냈다. 후에 신의 명령이 있어 “내 뼈를 조심히 묻으라”고 하였다. … 뼈를 부서 塑像을 만들어 대궐 안에 두었다. ② 신이 또 말하기를 “내 뼈를 東岳에 안치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 곳에 모셨다(혹은 왕이 죽은 뒤 27대 문무왕 때인 調露 2년 庚辰 3월 15일 辛酉 밤에 太宗의 꿈에 몹시 사나운 노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탈해이다. 내 뼈를 소천구에서 파내 소상을 만들어 토함산에 안치하라’고 하였다. 왕을 그 말을 따랐다. 때문에 지금까지 國祀가 끊이지 않았으니, 동악신이라고 한다).⁷⁰⁾

2) ① 왕이 죽었다. 未召疏井丘 안에 水葬하였다. ② 塑骨을 동악에 두었는데, 지금의 동악대왕이다.⁷¹⁾

69) 『삼국유사』 권5, 감통7 선도성모수희불사.

70) 『삼국유사』 권1, 기이1 제4탈해왕.

71) 『삼국유사』 권1, 왕력1 제4탈해이질금.

위의 사료 O-1)①에서는 탈해왕이 세상을 떠나자 처음에는 소천구에 장사지냈으며 후에 신의 명령으로 뼈를 묻었고 뼈를 부셔 소상을 만들어 대궐 안에 두었다고 한다. O-1)②에서는 다시 신이 말한대로 뼈(소상)를 동악에 안치하였다고 하였는데, O-2)②에서도 알 수 있다.

탈해의 소상이 궐 안에 있다가 동악에 안치된 시기와 관련해서 O-1)의 주를 보면 문무왕 2년(662)으로 나온다. 동악은 토함산으로, 탈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소이다.⁷²⁾ 그리고 탈해의 뼈가 동악에 안치된 후 O-2)를 보면 탈해는 지금의 동악대왕이라고 말한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중대 왕실은 탈해신화를 산신신앙과 연결시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대왕실은 소호금천씨 후손인 성한을 태조로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였고 혁거세, 알영 뿐만 아니라 탈해신화도 변화시켰으며 혁거세=알영=알지의 탄생을 동일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중대 왕실은 신궁제사를 지속적으로 지냈다. 다음도 관심을 끈다.

P. 權近이 말하였다. … 알영이 시조의妃가 되자, 국인이 아름다움을 칭송하였으니, 반드시 그 德은 국인의 마음을 복종케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시조와 더불어 아울러 二聖이라 칭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성의 칭호는 唐 高宗·武后의 때로, 고종이 무후에 빠져서 왕후로 세웠고 무후가 교활하고 사나워서 大政에 간여하여 簾을 드리우고 聽斷했으므로, 그 때 사람들이 이성이라 불렀다. 신라시대 초에 민속이 순박하여 그 임금을 일컫는데도 방언을 사용하였으니, 마땅히 이성이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필시 신라 사람들이 당 고종을 섬긴 뒤에 이성의 칭호를 익숙히 들어서 그 그릇됨을 알지 못하고 이를 본받아 追稱한 것이 아니겠는가?⁷³⁾

위의 사료 P는 앞의 사료 F-1)에 기술되어 있는 권근의 史論이다. 여기에 따르면 二聖이라는 칭호는 당나라 高宗이 武后에게 빠져서 황후로 세웠고 무후가 교활하고 사나워서 大政에 간여하여 말을 드리우고 함께 聽斷했으므로 그 때 사람들이 이성이라고 일컬었다고 한다. 이로 볼 때 중대 왕실에서부터 혁거세와 알영을 二聖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⁷⁴⁾ 또한 신

72) 『삼국유사』 권1, 기이2 제4탈해왕.

73) 『삼국사절요』 권1, 신라혁거세거서간 5.

74)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면 혁거세 38년 마한에 간 호공이 두 사람을 이성이라

라 중대 김씨왕실은 국가제사를 산천을 중심으로 대·중·소사를 편제하였는데, 이것은 기왕의 세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었다.⁷⁵⁾ 경덕왕이 나라를 다스린지 24년에 오악·삼산의 신들이 간혹 나타나 殿庭에서 왕을 모셨다고 한데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⁷⁶⁾

이상에서 중대왕실은 비록 자신들의 왕실 계보를 오묘제를 통해 확립하였지만, 여전히 건국 시조인 박혁거세와 여러 세력들을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의 사료 J-1)④에서 미추왕이 오릉 보다 위라고 하였다. 이러한 미추왕은 사료 K-2)를 보면 ‘金姓 始祖’라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Q 제13대 未鄒尼叱今(혹은 未祖 또는 未古라고도 한다)은 김알지의 7世孫이다. 대대로 현달하였으며 더하여 聖德이 있었다. 理解로부터 선위를 받아 비로소 왕위에 올랐다(지금 세상에서 왕의 陵을 始祖堂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김씨로써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일 것이다. 후대에 김씨 왕들이 모두 미추를 시조로 삼은 것은 당연하다). 재위 23년에 죽었다. 陵은 興輪寺 동쪽에 있다.⁷⁷⁾

위의 사료 Q 중 일연의 註인 “지금 세상에서 왕의 陵을 始祖堂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金氏로써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일 것이다”는 미추왕이 김씨로써 최초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고려 후기에 미추왕릉을 시조당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처럼 앞의 사료 K-2)에서 미추를 ‘金姓 始祖’라고 한 것은 미추가 김씨로써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미추는 혜공왕대 오묘제가 개정되면서 오묘의 수위에 모셔졌다.⁷⁸⁾

그런데 미추왕을 시조가 아닌 김성시조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고 한 것. 남해차차웅 원년의 두 사람을 지칭한 이성. 『삼국유사』 신라시조 혁거세왕조의 이성과 선도산성모수회불사조에 보이는 이성 역시 중대 이후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5) 채미하, 2007, 「신라 명산대천의 사전 편제 이유와 특징」, 『민속학연구』 20 : 2008, 앞의 책, 311~317쪽.

76) 『삼국유사』 권2, 기이2 경덕왕·충담사·표훈대덕.

77) 『삼국유사』 권1, 기이2 미추왕 죽엽군.

78) 시조에 대한 해석과 미추왕이 혜공왕대 김성시조가 된 이유와 관련해서 채미하, 2008, 앞의 책, 170~177쪽 참조.

건국 시조인 혁거세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로 볼 때 건국시조로서의 혁거세의 위상은 신라 사회에서 변함이 없었다고 여길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신라의 시조는 건국시조인 혁거세와 김성으로 처음으로 왕위에 오른 김성 시조, 즉 국조인 혁거세와 왕실의 시조인 미추로 정리되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해공왕대 이후 미추왕이 오릉 위에 있었다는 것은 건국 시조 보다는 김씨 왕실의 실질적인 시조인 미추왕이 우위에 두어졌음을 말한다.

한편 사료 K-1)⑤에 “(미추왕릉을) 大廟라고 칭하였다”고 한다. 대묘는 太廟라고도 하는데, 종묘의 시조묘(태조묘)를 가리킨다.⁷⁹⁾ 이것은 미추왕이 오묘의 시조로 정해졌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오묘를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미추왕에 대한 제사는 오묘이고 혁거세에 대한 당시의 제사는 신궁이었다. 그러하다면 오묘제사 역시 신궁제사 보다 우위를 점하였다고 할 수 있다.⁸⁰⁾ 이것은 한국 고대 실질적인 시조와 직계 조상을 모시는 제사가 시행되면서 오묘 단계에서는 시조묘·신궁 단계와는 달리 혈연적 계보가 무엇보다 중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⁸¹⁾

이상에서 오묘제 개정을 전후하여 신라에는 건국시조와 김씨왕실의 실질적인 김성시조가 구분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해공왕대 건국시조인 혁거세의 위상은 오묘제가 개정되면서 미추 아래에 설정되었고 그 제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거세는 건국시조로 신라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신라 하대의 신궁제사라든가 54대 경명왕이 매를 잃어버리자 신모에게 빌었는데 그것을 찾을 수 있었고 따라서 경명왕이 신모를 대왕으로 봉했다는데서 생각해 볼 수 있다.⁸²⁾ 그리고 경애왕은 왕 4년(927) 겨울 11월에 포석정에 가서 연회를 베풀다가, 후백제의 견훤에게 사로잡혔고 자살하였다고 한다. 포석정에서는 남산의 산신이 헌강왕의 앞에서 춤을 추기도 하였다.⁸³⁾ 이로 볼 때 포석정은 왕과 신이 만나는 공간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하다면 경애왕은 포석정에서 연회를 베풀었다기 보

79)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3, 444쪽.

80) 채미하, 2008, 앞의 책, 184~194쪽.

81) 채미하, 2012, 앞의 논문, 62쪽.

82) 『삼국유사』 권5, 감통7 선도성모수회불사.

83) 『삼국유사』 권2, 기이2 처용랑 망해사.

다는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을 9월 왕건에게 구원 요청을 한 다음 겨울 11월에 남산신에게 제사지냈다고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남산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양산으로, 혁거세가 탄생한 곳이었다. 이로 볼 때 남산신은 혁거세와 연결지어 이해해 볼 수 있으며, 신라 말까지 혁거세는 건국시조로서 그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⁸⁴⁾

5. 맺음말

이상에서 본 논문에서는 시조묘, 신궁, 오묘 단계의 건국신화를 국가제 의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살펴보았다. 남해왕 3년에 설치되는 시조묘는 시조혁거세묘이다. 혁거세신화에 따르면 혁거세의 출생은 신이하였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6촌장들은 그를 왕에 추존하였다. 이러한 혁거세의 등장으로 6촌장들 역시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으나, 그 기록은 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라 상고기, 특히 이사금기의 3성 집단은 각각 자기 족조를 제사지내는 독자적인 제사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박씨집단의 족조인 혁거세는 신라 상고기 내내 시조묘의 시조로 모셔졌다. 이것은 아달라왕대 신라연맹체의 제천이 사로국의 시조묘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혁거세가 국조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시조묘는 혁거세가 묻혔다고 여겨진 장소에 설치되었다. 혁거세는 죽은 후 승천하였다가 7일 후 유체가 떨어졌으며, 이에 그것을 각각 장사지냈는데 이를 오름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혁거세는 출생 뿐만 아니라 죽음 역시 천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오름 관련 전승을 통해 그의 신성성은 더욱 강조되었으며, 혁거세릉=오름으로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혁거세의 죽음과 오름 전승은 아달라왕대 사로국이 신라 연맹체의 제천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조묘 중수가 이루어지면서 재조명된 것이었다. 이에 혁거세는 다른 세력에 대해 배타적일 수 밖에 없었는데, 알영이 죽자 혁거세와 합장하려 하였지만 뱀의 방해로 하지 못하였다는 전승에서 알 수 있었다.

신궁은 소지왕 9년에 설치되었다. 여기에 모신 시조는 혁거세였으며 중

84) 경애왕은 원년 10월에 친사신궁하기도 하였다.

고 김씨왕실은 이 때 시조 혁거세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왕의 계보도 확정하였다. 이처럼 중고 김씨왕실이 자신의 직접 시조가 아닌 혁거세를 모신 이유는 아직까지 연맹체적 질서를 극복하지 못한 정치 상황 때문이었다. 따라서 신궁에는 혈연적 계보 관념에 의한 직계조상이 아닌 쏘 국가적 시조왕을 모셨다. 그리고 자신의 시조인 알지는 혁거세 신화에 부회하였는데, 혁거세가 처음 말할 때 알지거서간이 일어난다고 한 것이라든지 국호인 계림국을 혁거세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그것이었다. 한편 시조로부터 당대에 이르는 왕계의 정리는 시조의 신격화 작업과도 관련있는 것이었다. 이로써 시조의 친신적 성격은 더욱 강조되었고 신궁제사 때 왕은 천이 내려 준 천사옥대를 착용하였다. 그리고 시조가 初生(誕生)한 장소인 양산과 나을을 통해 혁거세는 천 뿐만 아니라 山·井과도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성격 역시 복합적이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중고 왕실은 다양한 세력을 포용할 수 있었다. 이것은 건국신화에서 혁거세·알지·탈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혁거세가 계정에서 태어났다고 한 점과 알영이 혁거세와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점을 통해 신궁단계에서 알영 역시 혁거세신화에 포용되었다고 하였다.

오묘제는 자기 世系 조상을 제사하는 가묘제로, 왕실의 직계 조상을 모시는 제사제도이다. 신라 중대 오묘제 성립을 전후하여 김씨왕실은 중국 상고 전승에 나오는 소호금천씨에서 김성 칭성 이유를 찾고 있으며 오묘의 수위에 그의 후손인 성한을 태조로 모셨다. 이러한 변화는 김성시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왕의 혁거세·알영·탈해신화의 내용과는 달리 혁거세와 알영은 서술성모가 낳았다고 하였으며 탈해는 동악대왕으로 불려졌다. 게다가 계정=계림=백마가 서쪽과 관련있다고 하면서 알영=알지=혁거세 탄생의 유사성을 강조하였다. 혜공왕대 오묘제가 개정되면서 미추왕은 김성 시조가 되었다. 이 때 미추왕을 시조가 아닌 김성시조라 한 것은 건국시조인 혁거세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혜공왕대 이후 신라의 시조는 국조인 혁거세와 왕실의 시조인 미추였다. 하지만 혜공왕대 이후 미추왕이 오릉 위에 있었다는 것은 건국 시조 보다는 김씨왕실의 실질적인 시조인 미추왕이 우위를 점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추를 수위에 모시는 오묘제사 역시 혁거세왕에 대한 제사보다 그 위상이 높아졌다. 이것은 시조묘·신궁단계의 시조가 자연신적인 성격이었

다고 한다면 오묘에서는 혈연적 계보가 그 무엇보다 중시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혁거세는 신라의 건국신화와 국가제사에서 그 격에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신라 하대 신궁 제사와 경명왕대 神母의 활약, 경애왕이 포석정에서 제사지냈다는 점에서 혁거세는 여전히 건국시조로서 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건국신화, 혁거세, 알지, 알영, 탈해, 국가제의, 시조묘, 신궁, 오묘제, 미추왕

논문투고일 : 2014. 03. 19

논문심사시작일 : 2014. 04. 11

논문게재확정일 : 2014. 05. 08

참고문헌

1. 자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2. 저서

- 김두진, 1999, 『한국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조각.
 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三品彰英, 1973, 『古代祭政と穀靈信仰』, 平凡社.
 신종원, 1992,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조현철, 2003,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 지성사.
 井上秀雄, 1978, 『古代朝鮮史序説－王者と宗教』, 寧樂社.
 池田末利, 1981, 『中國古代宗教史研究－制度と思想』, 東海大學出版會.
 채미하, 2008,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해안.
 최광식, 1994,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3. 논문

- 김두진, 2003, 「신라 六村長神話의 모습과 그 의미」, 『신라문화』 21.
 김선주, 2010, 「알영 전승 의미와 시조묘」, 『역사와현실』 76.
 나희라, 2005, 「신라의 건국신화와 의례」, 『한국고대사연구』 39.
 서영대, 1997, 「서평－『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최광식 저」, 『한국사연구』 98.
 서철원, 2012, 「朴·昔·金 시조신화의 대비를 통해 본 新羅 始祖 관념의 형성 단서」, 『신라문화』 40.
 윤성용, 2005, 「고구려 건국신화와 제의」, 『한국고대사연구』 39.
 이문기, 1999, 「신라 김씨 왕실의 소호김천씨 출자 관념의 표방과 그 변화」, 『역사교육논집』 23·24.
 채미하, 2000, 「신라 해공왕대 오묘제의 개정」, 『한국사연구』 108.
 채미하, 2001, 「신라 하대의 오묘제」, 『종교연구』 25.

- 채미하, 2002, 「신라 종묘제의 수용과 그 의미」, 『역사학보』 176.
- 채미하, 2003, 「신라의 시조묘 제사」, 『민속학연구』 12, 2003.
- 채미하, 2004, 「신라의 신궁 제사」, 『전통문화논총』 2, 한국전통문화학교.
- 채미하, 2004, 「신라의 오묘제 '시정'과 신문왕권」, 『백산학보』 70.
- 채미하, 2011, 「신라의 6촌과 산악제사」, 『신라사학보』 23.
- 채미하, 2012, 「한국 고대의 죽음과 상·제례」, 『한국고대사연구』 65.
- 최광식, 1995, 「신라 상대 왕경의 제장」, 『신라왕경연구』(신라문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16).
- 최광식, 1997, 「신라의 건국신화와 시조신화」,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The Birth Myth of Silla and National Ceremony for ancestral rite

Chai, Mi-ha

This thesis is study about that the birth myth of Silla was changed having close relationship with national ceremony for ancestral rite. Sijomyo set up at king Namhae 3 years enshrined Hyeokgeose who had been Sijo of Park's family group. However Jaecheon of Silla Allied Communities was united into Sijomyo of Saro community at King Adalra period and Hyokgeose became not only Gookjo but also the main god of Sijomyo through ancient time of Silla. This change in Hyeokgeose's status was reflected in Hyokgeose myth which could be seen in transmission about Hyeokgeose's death and Oryeung. And the exclusiveness of Hyeokgeose was thought from that Alyoung had not buried with Hyeokgeose interrupted by a snake.

The main god of the palace for gods established at king Soji 9 years was Hyeokgeose, who had characteristic of national king Sijo. This was understood given that Hyeokgeose, Alji.Talhae had been connected in birth myth of Silla. Especially Kim's royal family made their Sijo, Alji took advantage of Hyeokgeose myth. They said that Alyoung was embraced in Hyeokgeose myth at the stage of palace for gods transmitting that Hyeokgeose had been borne in Gyejeong or Alyoung had been borne in the same year with Hyeokgeose. This characteristic of Hyeokgeose's embracement was shown in the place as well where Sijo was first borne, that is, Yangsan and Naheol.

Kim's royal family during the middle period of Silla found the reason of designating Kim for their surname from Sohokumcheon family among transmission of Chinese ancient time. And his descendant, Seonghan was enshrined as Taejo in Omyo and at king Hyegong period, King Michu was enshrined in Omyo as Sijo of Kim's surname. This change was also shown in that Hyeokgeose and Alyoung had been borne by Seosoolseongmo and Talhae had been called Dongakdaewang, which were different from previous myths on Hyeokgeose, Alyoung, Talhae. Also In birth myth, Gyejeong, Gyerim and Baekma were identified the same as Alyoung, Alji and Hyeokgeose were. This showed Omyoje which considered blood relation importantly effected a big change in the birth mith of Silla.

Key Words: The birth myth of a nation, Hyeokgeose, Alyoung, Alji, Talhae, National rite for ancestors, Sijomyo, Palace for gods, Omyoje, King Michu